

특집 타자들의 장소

타자들의 공동체

타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가능성*

Community of Stranger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mmunities of Strangers

김지윤**

본 연구는 공동체, 초국가적 도시화 그리고 세계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 혹은 타자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한다. 그동안 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은 공동체를 정의함에 있어 단일한 정체성이나 동일성에 기반하여 공간적·문화적 경계를 가진 하나의 실체로 정의해 왔다. 특히 이러한 정의 방식을 에스닉 공동체에 적용했을 때 이는 특정 종족성에 대한 위계적 질서에 기반하여 주류 사회의 주체로서의 다수와 ‘이방인’으로서의 특정 종족 간의 구분을 내재화하게 된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과 같은 정치학자는 차이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이상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개념을 거부하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기획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연구는 “타자들의 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러한 시각은 철학자 장-뤽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 개념에 기대어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닌 인간 존재로서 죽음과 같은 존재론적 한계를 공유하고 있는 인간에게 도래하는 것으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타자들의 공동체는 주체와 타자 간의 이분법에 의한 위계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이상적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타자, 이주민, 계도, 공동체, 낭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082514).

**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cyandom@gmail.com).

1. 타자성을 배제하는 공동체론에 대해

사회적 존재는 필수적으로 언제나 공간적 존재이며 사회적 삶의 핵심은 타자성 혹은 타자와의 조우이다(Malpas, 2012).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타자와의 조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도시이다. 도시는 타자가 나와 가장 가까운 노동의 장소, 소비의 장소, 정치적 참여가 발생하는 거리, 혹은 나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공존하는 곳이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에 의하면 타자는 도시에서 일종의 알려지지 않은 ‘변수’(Bauman, 2010: 85)와 같은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할 때 모든 계산의 공식에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변수로서의 타자가 위협적 요인으로 인식될 때 이는 공포의 대상이 되며, 변수가 흥미를 자극할 때 매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국처럼 단일한 종족적 민족성(ethnic nationality)(Shin, 2006)에 기반한 공동체적 기원을 갖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회에서 타자는 곧 외국인이었다고 타자의 존재는 그 차이가 드러날 때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단일 민족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이러한 믿음을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는 변수로 작용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 혹은 결혼 이주자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증가하던 한국 사회의 타자성(otherness)을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한국 정부는 2006년을 기점으로 ‘다문화사회’를 공표하였다. 이때 노동과 결혼을 매개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된 타자들은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민족적 특성 등에 따라 ‘주류’ 공동체로 상상되는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동화되도록 시험받는 대상이 되었다(Kim, 2017). 공동체에 대한 보수적 이상은 이렇게 동일성을 끌어안고 동시에 타자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주의 시대 혹은 글로벌 도시 환경에서 개인은 서로에게 이방인이자 타자로서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외국인’ 혹은 ‘이주자’로서 상상되는 타자에 대한 협소한 의미는 재정의되어야 하며, 다양한 타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동일성에 기반한 공

동체에 대한 상상의 믿음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자는 위계적 질서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주체’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닌, 주체가 언제든 타자가 될 수 있는 상황 혹은 주체와 타자 간의 구분이 무위한 상황에서의 타자이다. ‘타자들의 공동체’는 자아와 타자라는 이분법이 부과하는 위계적 권력을 무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과연 이러한 타자들의 공동체가 가능할 지 그 공간적·개념적 조건들은 무엇일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려고 한다.

‘사회’와 ‘문화’라는 개념만큼 ‘공동체(community)’라는 개념은 쉽게 정의하기 어려우면서도 일상적으로는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의 증가로 특정 종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지칭할 때나 혹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면서 그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톨니스(Ferdinand Tönnies)가 근대 사회가 점차 전통적인 연대감에 기반한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기반한 게젤샤프트(Gesellschaft)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한 이래 공동체에 대한 이상은 강화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이미 파괴되어 상실된 이상적 유토피아로서 소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절된 익명의 대도시에서도 연대감에 기반한 공동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그러하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호명하는 현실의 공동체들은 대개 하나의 종족성(ethnicity), 계층적 특성, 혹은 공통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상상된다. 여기서 배제되는 타자성은 역으로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외부적 요소로서 기능하게 된다. 특정 집단을 이러한 동일성에 기반한 공동체로 정의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들이 있다. 20세기 초반 시카고학파는 지정학적 혹은 도시의 건조 환경에 따른 임대료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후 장소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이 경제적 결정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Cohen, 1985; Firey, 1944; Hunter, 1974; Mewett, 1986).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부의 재분배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어떤 공동체를 글로벌 도시 내에서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한다(Harvey, 1989; Sassen, 2000).

이후 정치철학자인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Young, 1990)은

차이의 정치학에 주목하면서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타자와 차이에 대한 억압적 성격을 강조한다. 영은 “동화되지 않는 타자성에 대한 개방성”을 체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지칭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탐색하기를 제안하며 공동체라는 개념을 포기하는 것의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한다. 공동체의 형성 그 자체가 이미 종족성이나 문화적 특성의 동질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차이의 정치학을 인정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공동체 개념이 사람들에게 시공간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의 단위(intermediate scale)로 장소성의 감각을 부여하는 한 공동체 개념의 사용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이 동일성에 기반한 내적 연대감과 동일한 가치관에 대한 추구를 공동체의 조직 원리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일성이 주로 공동체 내 위계화와 차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국가적 이동이 삶의 한 조건이 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이러한 내적 연대감과 동일성에 기반한 공동체성이 언제나 이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류 사회가 소수집단을 공간적으로 집적시키는 외재적 요인이 점점 더 비자발적 공동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들 공동체가 반응적이거나 방어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아니다. 특정 공동체로 상상되거나 정의되는 이 공동체는 외부적 요인과의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되므로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특정 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더 큰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 간의 경합을 함께 포착해 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foreigners), 이방인(strangers), 타자(others) 등으로 개념화된 일반적인 타자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과연 이러한 타자성과 차이를 배제하거나 위계화하지 않는 공동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타자에 대한 논의에 이어 도시 생활의 주요 기반이 되어온 공동체의 조직 원리 및 특성을 연구해 온 도시사회학의 공동체 논의를 살펴본다. 이후 이 논의들에 대한 대안 혹은 이상적 담론으로서 영(Young)의 차이의 정치학과 철학자 장뤽 낭시(Jean-Luc Nancy)의 “무위의 공동체(the inoperative

community)” 논의에 기대어 이를 사회학적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타자들의 공동체가 가능할지 논의할 것이다.

2. 외국인(foreigners), 이방인(strangers), 그리고 타자(others)

철학에서의 타자는 존재론적으로 나를 제외한 모두가, 심리학에는 심지어 나도 알 수 없는 내 안의 무의식적 자아가, 사회학에서는 사회라는 구조 자체와 개별적 주체가 타자로서 탐색되어 왔다. 여러 분과 학문이 서로 다른 범주와 명명을 통해 타자와 타자성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방인, 외국인, 이주민 등으로 불리는 차이에 기반한 현실론적 존재로서의 개별적 인간 존재를 타자로 일반적으로 지칭하려 한다. 다만 외국인-이방인-타자 등으로 구분된 개념의 사용은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학자들이 그들의 논의에서 사용했던 개념을 그대로 살리고자 그대로 따르려 한다.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짧지만 강렬한 이방인에 대한 에세이는, 이방인에 대해 “오늘 도래하여 내일도 머물”(Simmel, 1950[1908]) 존재로 정의한다. 20세기의 이방인은 여러 도시를 떠돌던 방랑자가 아니라 도착한 그 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언제 떠날지 물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다. 그 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나서 그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닌 이 낯선 자는 그래서 그 사회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 차이는 위계적 억압의 대상이 될 만한 부정적 차이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이방인이기에 그 사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이다. 이 객관성은 특정 사회에서 습득한 관습 등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해주기에 자유를 보장해 주기도 한다. “멀지만 가까운, 무관심하지만 참여하는”(Simmel, 1950[1908]: 403)과 같은 이중적 성격에서 오는 객관적 시각이다. 이 이방인은 공간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기에 그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만’의 방식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에 전적으로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그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멀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그 사회에 대한 이방인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방인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다. 특정 시점에 특정 국가나 도시에서 이방인으로 인식되는 이들의 그 비동일성은 수용 사회와의 차이가 이들을 특정한 타입의 이방인으로 인식하게 하기에 그 사회의 이방인이 되는 것이다(Simmel, 1950[1908]: 407~408).

역사적으로 짐멜이 당시 이 글을 쓰며 염두에 두었던 이방인은 유럽 전반에 걸쳐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계 상인이었다. 그러나 짐멜의 이방인은 유대계 상인의 구체성에 근거하여 정의되는 대신 주류 사회와의 공간적·사회적 거리감이 가능하게 한 여러 특성들로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이 가진 모호성은 그래서 타자가 누구인지 정의함으로써 갖게 될 범주화 대신 누가 이방인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통해 오히려 주류 사회가 가진 특성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정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사회의 관습과 이데올로기에 물음을 던지게 하는 젠더적·인종별·민족적·계층별 소수자일 수 있다. McLemore(1970)는 짐멜의 이방인이 공간적으로는 그 사회의 구성원일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구성원이 아닌 존재였음을 지적한다. 보통 ‘이방인의 사회학’이 그 사회에 새로 오는 자,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이주민으로 호명되는 이들을 이방인으로 정의하면서 그들의 동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짐멜은 이들의 사회적 동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짐멜과 슈츠처럼 독일 이론가들은 이방인 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시카고학파의 사회학자들은 주류 사회에 대한 이방인의 영향력에 더 관심이 있었다. 시카고학파의 실용주의자들은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독일식 질문을 미국적 질문인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우리처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린다(Turner, 1991: 249).

가속화된 세계화 흐름에서 정주하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데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Brian Turner)(Turner, 1991)는 일찍이 레슬리 하먼(Lesley D. Harman)(Harman, 1988)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걸쳐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의 이방인 타입을 비교 분석한 것에 덧붙여 독일 이론가들과 미국 시카고학파의 두 가지 다른 시각을 비교한다. 짐멜이 공동체와 이방인이 맺게 되는 독특한 입장에 대해 관심을 둔 반면 시카고학파는 이방인인 이민자들의 이주 경로를 탐색하고, 그들의 지역적 위치에 대해 분석하며, 이주민을 주류 사회에 통합시키는데 주요 관심을 두었다. 시카고학파의 이방인에 대한 연구는 이주, 도시화, 그리고 다문화적 사회로서의 미국의 탄생에 대한 연구였던 셈이다(Turner, 1991: 249).

터너의 분석처럼 이방인의 독특한 입장에 대한 짐멜의 관심사는 어느덧 이방인이 주로 이주민으로 인지되는 사회에서는 이제 정주와 동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재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먼 역시 이방인성(strangeness)은 주류 사회가 극복해야 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종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고 언급한다(Turner, 1988: 44). 그러나 하먼이 제시하는 이방인성은 짐멜의 시대처럼 이방인이 예외적인 존재였던 근대를 지나 포스트모던 시대에 누구나 이방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마치 현대의 이방인을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자유로운 개인으로 묘사한다(Turner, 1988: 151). 그러나 1980년대 당시 시각에서 상상했던 이러한 문화적 노마드로서의 이방인의 이동성은 급증하는 이주민을 사회적 불안감의 근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많은 국가들의 보수적 회귀로 인해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바우만은 이주민, 난민, 외국인, 그 외 다양한 낯선 이들인 타자들과의 급증하는 조우 자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삶의 조건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타자들과의 공존에 대해 논의한다.

이방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된 이방인과의 공간적 가까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도시민이 어려워하는 상황이지만 피할 수도 없는 삶의 조

건이다. 이방인과의 가까움은 그들의 운명으로서 매일 시도되고, 경험되고, 테스트 받게 된다. 어쩌면 운이 좋게도 이러한 이방인과의 삶이 활기차고 살아볼 만한 상황이 되는 그러한 영속적인 삶의 조건 말이다(Bauman, 2010: 86).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대부분의 사회는 바우만의 “모든 사회는 그들만의 이방인을 생산한다”(Bauman, 1995: 1)는 말처럼 그들 스스로의 이방인을 만들어내기를 멈추지 않는다. 즉 누가 이방인, 타자가 될지는 그 주류 사회에 달려 있다. 각 사회는 끊임없이 이방인을 생산하고 이들을 둘러싼 인지적, 미학적, 도덕적 지도를 그린다(Bauman, 1995: 1). 현대 사회의 이방인은 그들만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사회나 국가의 계획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들을 이방인으로 낙인찍고 이들에 의한 사회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맵핑(mapping) 작업을 통해 이들의 위치를 인지하며, 이들의 존재를 미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존재로 정의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도덕적으로 비난한다. 바우만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차이를 무화시키는 방식인 동화와 아예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배제를 각각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표현을 빌려 그 차이를 먹어치우는 ‘식인적’ 행태와 아예 뺏어내어 버리는 ‘토인적’ 행태로 구분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방인 혹은 타자에 대한 물음은 더 이상 이들을 어떻게 동화시키거나 배제시킬 것인가에 머물기보다는 그들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정체성의 정치에서 이제는 단지 국가가 쉽게 누군가를 타자로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자가 정의되는 사회에서 주체와 타자와의 경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 곁에 가까이 온 타자 그리고 내가 언제든 다른 누군가의 타자가 되는 이러한 삶의 조건에서 누가 타자인지 구분 짓거나 타자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타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체인 ‘나’와 ‘타자’ 간의 이분법적 구분과 이에 따른 권력적 위계 구조를 해체하려는 것이다. 영(Young, 1990)이 차이의 정치학에서 주목한 차이는 젠더, 성적 지향성, 종족성

(ethnicity), 그 외 다양한 차이로 인한 편견과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소수자들의 차이이다. 그녀의 정치적 이상은 익명성에 근거하여 차이를 인정하는 비억압적인 관계를 도시라는 현실적 삶의 조건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해 온 이상적인 공동체는 사회적 차이들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수자 그룹의 차이가 야기하는 다수자가 느끼게 될 공포와 혐오는 이 속에서 정당화되거나 강화된다(Young, 1990: 261). 차이를 인정하는 비억압적인 도시는 차이보다는 동일성에 기반한 공동체를 이상으로 여기는 도시 정치와 그래서 양립 불가능하다.

3. 동일성에 기반한 공동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 인종, 종족, 언어, 역사적 특수성처럼 어떤 공통적 특성에 기반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처럼 본질적인 동질성에 기반하는 것인지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공동체라는 것은 매우 안정적이며 역사성과 지역성에 기반한 본질적인 하나의 정체성을 추구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려고 한다. 점점 더 이동성과 다양한 타자와의 조우가 일상적이 되어 가는 글로벌 도시의 일상적 조건에서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누군가를 구성원으로서 포함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연하면서도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공동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의 시대에 어느 도시에나 이주민들은 존재하고 있고 특정 종족적 구성원들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경우 쉽게 특정 에스닉 공동체(ethnic community)로 호명되곤 한다. 이를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은 결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에스닉 공동체로의 명명 그 자체는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이 “차이를 위계화하고 이러한 차이를 동화시키고자 하는 도덕적 욕

망을 정당화”(Fincher and Jacobs, 1998: 6) 하는 방식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정 에스닉 공동체의 명명은 그래서 종족적 소수자를 주류 사회와 쉽게 구분 짓고 차별화하려는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종족성(ethnicity)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논의(Gupta and Ferguson, 1992; Hall, 1997)가 이미 널리 공유되고 있다. 에스닉 공동체로의 명명은 이들을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쉽게 동질화하고 다시 한 번 공동체라는 호명을 통해 사회적으로 단일한 그룹으로 그 내부 차이를 무화시키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쉽게 반영하고 있다(Baumann, 1996: 19). 여러 에스닉 공동체가 공존해 온 영국 사우스홀(Southhall)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에서 바우만(Baumann)은 공동체라는 용어가 개인이 스스로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집단성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이들에 의해 부여된 종족적 특성에 기반한 타자성의 전형성을 지칭하는 것인지 질문한다. 한국에서도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특정 종족의 사회적·공간적 집중화가 두드러질 경우 쉽게 에스닉 공동체로 호명하고 위치 맵핑(mapping)을 통해 이들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고 데이터로 추상화한다. 에스닉 공동체와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러한 지배적 담론은 이 둘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영락없이 매우 경건하기까지 한 사기가 아닐 수 없다. 종족적 소수자들은 쉽게 ‘공동체’로 호명되는데 이는 단지 이 소수자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백인 다수자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Ignatieff, 1992).

이러한 수사법은 에스닉 공동체를 마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단체로 혹은 ‘과거 없는’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 소비하게끔 한다. 가령 대다수 글로벌 도시에는 차이나타운(China Town), 리틀 인디아(Little India), 리틀 이탈리아(Little Italy)와 같이 관광 대상이 된 에스닉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 역사적 흔적들과 상관없이, 공식적인 담론과 재현을 통해 각각의 종족성을 대표하는 장소로 지정된 구역들은 그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고 그들의 일상이 다양한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 재현되고 조정된다. 도시 연구자인 T. C.

창(T. C. Chang)(Chang, 2000)은 싱가포르의 특정 구역이 정부에 의해 리틀 인디아 역사지구(Little India Historic District)라는 테마 지구로 조성되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재개발 계획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상권을 변화시켰는지 보여 준다. 인도 계열 주민의 종족성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주민들은 종족적 특성과 상관없이 인도풍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에 의해 밀려난다. 종족적 특성의 시각적 재현을 위해 외부에서 가해지는 조정에 의해 일종의 ‘장소 길들이기’가 실현된다. 특정 종족적 특성을 가진 장소는 쉽게 그 에스닉 그룹의 ‘진정한’ 혹은 ‘권위 있는’ 공동체로 대표되며 주류 사회가 바라보는 종족적 특성을 재현하거나 재생산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에스닉 공동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어떠한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요인들이 에스닉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고 특정 에스닉 공동체로 정의 내리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리학자 린다 맥도웰(Linda McDowell)(McDowell, 1999)은 공동체란 특정 사람들을 함께 묶어 인식하게 하는 어떤 공통점을 지닌 중위 수준의 장소들 혹은 지역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공동체의 경계는 일차적으로는 자연적·물리적 요인들에 의해, 이후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감정적 소구와 애착에 의한 상징적 작용에 의해 강화되어 인지 가능한 수준인 실질적 단위(entities)로 실현되기도 한다. 시간성을 두고 선행했던 공동체적 특성과 경계는 항상 일방적이지 않으며 내부적·외부적 요인들, 그리고 권력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맥도웰은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 내부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함의하는 한, 그 개념 자체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손쉽게 어떤 가시적인 특징이나 특정 종족적·문화적 특성에 기반하여 제한된 지역이나 그룹을 공동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호 연결된 공간적 맥락 내에서 그 공동체를 주조해내는 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Gupta and Ferguson, 1992: 8).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의 공동체 논의들이 어떻게 동일성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정의해 왔는지 살펴본 후, 차이와 타자성 혹은 이방인성에 기반한 공동체 정의의 가능성과 연계해 보려 한다.

1) 공간적 경계와 거리

공간적 지형은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거나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Lynch, 1960)가 도시의 이미지 분석에서 밝히는 것처럼 자연과 인공적 건축물, 길의 방향과 너비, 강이나 구릉의 자연적 요소를 포함하여 물리적 요소들은 공간에 대한 심상을 결정하고 이러한 건조 환경 속에서의 반복적인 일상의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들에 대한 심상은 물론 타인과의 접점을 결정하는 조건들이 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가상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도 거리나 건조 환경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시공간을 체화하게 해주는 공간적 경계와 거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도린 매시(Doreen Massey)(Massey, 1984) 역시 글로벌 도시가 강조하는 이동성과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역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의식은 특정 지리학적 공간에 의해 형성된다”(Massey, 1984: 117)라고 말하며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카고학파의 인간생태학적 접근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종족별·계층별 공동체의 조직 원리를 밝히는 데 주목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물질성에 가장 주목했던 이들이다. 인간생태학적 접근은 제한적인 공간 자원에 대한 경쟁이 임대료로 정의되며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계층적 차이와 맞물려 특정 종족의 공간적 분포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좀 더 구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어니스트 왓슨 버제스(Ernest Watson Burgess)의 동심원 모델로서, 도심 내에서 공간적 위치와 이에 따라 부과되는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을 경제적 자원 하나로 상정하는 공간 결정론적인 시각으로까지 나아갔다. 임대료 경쟁에 의한 공간적 계급화로 해석되는 생태학적 결정론은 역동적인 공동체의 측면과 미적·정동적 원인에 대해 주목하지 못한 한계로 비판 받게 된다. 핀처와 제이콥스는 이러한 생태학적 모델은 “종족적 거주지인 엔클레이브(enclave)와 게토(ghetto), 성매매 장소, ‘밝고 깨끗한’ 교외 지역에 대한 예측가능한 공간적 패턴”(Fincher and Jacobs, 1985: 5)을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 연구에서 시작된 시카고학파의 도시 공동체 연구는 도시인류학의 질적 연구에 선행한 선구자적 성격을 띠게 된다.

공동체의 공간적 경계가 특히 에스닉 공동체에 적용되면서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개념화가 더 분화되기도 하였다. 가령 던컨 팀스(Duncan Timms)가 제시한 “모자이크 공동체(mosaic community)”(Timms, 1971)는 도시의 특정 구역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민족적 특성이 결합되었을 때 분화된 상태를 잘 포착해 낸다. 일단 공간적 분리가 발생하면 특정 종족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 구성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그리고 감정적 구조가 공간적으로 내재된다(Park, 1952: 17). 도시 내 인구수가 증가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며 그 다양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주거지의 분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화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서로 다른 그룹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동질적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유무형의 도움을 주고받을 있는 느슨한 연대가 공동체 단위에서 더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Timms, 1971). 이러한 관점에서는 동질성이 적은 동네일수록 범죄율이 높다고 본다. 이주민들의 공동체를 연구했던 다수의 연구들은 이주민 공동체를 관찰한 결과 이주민들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종족 그룹과의 ‘기대되지 않는 당혹한’ 조우를 줄임으로써 ‘무질서’한 도시에서 안전을 추구함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당혹스러운 조우를 피하는 방법은 종족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형성이었다. 따라서 종족적 특성과 결부된 계층화된 모자이크식의 공동체 유지는 적극적인 종족별 주거지 분화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가 도시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방어적 공동체(defended neighborhood)(Suttles, 1972)는 “조직된 패거리들, 제한적인 계약 관계들, 분명한 공간적 경계, 위험한 평판 등을 형성하여 스스로를 폐쇄적으로 유지하는 거주 집단”을 일컫는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공통적으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 우범지대의 위험함, 그 외 다양한 곤란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위해 구성된 이 방어적 공동체 내에서 주민들은 상

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친화성을 구축한다. 방어적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적 이동성을 제한하고 뚜렷한 공간적 경계를 형성하며 국가의 통제나 외부 주류 사회에 의해 가해지는 어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방어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인지지도(cognitive maps)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적과 친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여러 다양한 이동의 선택지 중 가장 안전한 이동 경로를 선택하여 원하지 않는 충돌을 피하는 데 익숙하다. 방어적 공동체의 경계는 골목이나 건물 등의 물리적 건조 환경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심상 및 과거의 사건들이 결합하며 분명해진다. 경계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동체 구성원을 외부인들로부터 방어하며 동시에 외부인을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경계는 긴장관계, 반감, 적대감, 충돌 등의 부정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우리’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지연시킨다.

이러한 공간적 경계에 의한 공동체의 방어적 기능 혹은 모자이크 구성이 보여주는 종족별로 세분화된 공동체들의 ‘공존’이라는 것을 정당화해야 할 것인가? 공간적 경계의 분리적 성격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토(ghetto)에 대해 바우만은 비유적으로 그 자체가 “공동체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Bauman, 2001: 122)고 지적한다. 그는 현대사회의 게토를 자발적 게토와 비자발적 게토로 구분한다. 전자는 글로벌 엘리트와 상위 계층이 ‘위험한’ 외부인을 차단하는 게이티드 공동체(gated communities)로서 자신들은 초국가적 이동성을 지니지만 ‘위험한’ 타자들의 이동은 제한한다. 후자의 비자발적 게토는 스스로 탈출하고 싶지만 경제적 혹은 정치적 제약에 의해 공간적으로 갇히게 되는 이들의 ‘진정한’ 게토를 의미한다. ‘자발적’ 게토가 글로벌 공간들과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지역과의 관계를 외면한다면, ‘진정한’ 게토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찍기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성이 제약되고 고립된 곳이다. ‘진정한’ 게토가 앞서 언급한 방어적 공동체처럼 자신들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공동체주의를 보여주는 하지만 이는 자발적 선택이 아닌 유일한 선택지로 남겨진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사회적 소수자나 하위계층으로 이루어

진 이러한 비자발적 계토의 존재 자체는 이상적인 공동체주의의 발현이 아닌 이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축출된 존재임을 보여줄 따름이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이들은 계토를 둘러싼 주류 사회의 타자로서 소통 불가능한 존재로 고립되어 있다.

2) 정동적 혹은 상징적 애착과 공동체의 이상화

장소에 대한 문화적 가치 혹은 정동적 애착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요소들도 공동체의 구성원을 동질화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월터 파이어리(Walter Firey)(Firey, 1944)는 가족적 유대감, 역사적 동질감, 미적 요소 등에 의한 다양한 감정들이 개별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시카고학과 학자들이 주로 지대나 임대료가 개인의 공간 선택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했을 때,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해준다. 피터 메웬(Peter G. Mewett)(Mewett, 1986)은 공동체의 경계가 갖는 물질적 요소보다는 지식과 담론의 문화적 생산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추상적 혹은 무형의 경계가 가진 힘에 더 주목하였다.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이웃의 구성원과 구분 짓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위치 지우는 특정한 지식들을 저장하고 구성하는 담론의 조절을 통해서이다. 이 지식은 발화의 과정을 통해 다양하게 연계되고, 되살아나고, 나날이 새로워진다. 일상에서의 소문과 대화에서 사회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것이다(Mewett, 1986: 74).

학교나 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공동체보다는 일상의 반복되는 활동과 그 안에서 공유되는 상식들이 독특한 공동체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경계는 '상징적'이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이러한 경계 역시 누가 내부자로 인식될지는 물론 누가 외부자로서 배척될지를 결정한다. 즉, 공간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상호작용이 구성해 내는 상

징의 공유 자체도 공동체 구성에 큰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앨버트 헌터(Albert Hunter)의 “상징적 공동체(symbolic communities)” 역시 공동체의 경계라는 것이 주민들의 인지적, 평가적, 정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주장한다(Hunter, 1974: 180). 개인이 그 공동체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경계의 의미는 협상 가능한 것이 된다. 개인은 여러 다른 스케일의 공동체에 중첩적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그 위계들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의 마을에서부터 추상적인 사회에 이르기까지 개인은 선택적으로 어느 층위의 공동체에 더 동질감 느끼게 될지 협상하게 된다. 이러한 경계의 역동성은 공동체의 정의가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앤소니 코헨(Anthony P. Cohen)(Cohen, 1985)도 공동체의 상징적 구성을 강조하면서 물리적 형태 보다는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감각을 갖게 해주는 것은 주관적 느낌이라고 강조하며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있다. 이를 지리적 혹은 사회지학적(sociographic) ‘사실’(원저자의 표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Cohen, 1985: 98)라며 각 개인의 주관적 심상에 물리적 ‘사실’과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상징의 의미와 그 해석은 대개 주관적이며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각 개인이 인식하는 공동체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공동체가 물리적 혹은 지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개인의 주관적이며 정서적 측면이 공동체의 장소성과 연계되는가’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개별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공간적 배치나 장소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와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한다는 전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상징적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간과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회적 실천과 행동의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특히나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현실적 효과들에 대해서는 간과된 측면들이 있다.

3) 글로벌 도시담론에서의 반응적 공동체

기존의 공동체 연구가 종족적 차이에 따른 공동체의 구분 등 상대적으로 도시의 장소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1980년대 이후 도시사회학에서는 글로벌 도시와 자본주의적 논리에 따른 자원의 배분과 공간의 재조직화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거주지의 분화 자체는 자본 축적의 논리가 반영된 전형적인 도시화 과정이라고 본다. 주택, 교육, 다른 공공 인프라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과 주거지의 분화는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공간적 분화에 따르는 공동체들의 형성은 노동력의 재생산은 물론 계급 재생산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사회적·공간적 이동성을 제한하게 된다. 주거지 분화에 대한 하비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각 계급이 자신들의 자본력에 따른 공간적 실천이 어떻게 계급 차이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지 보여준다. 중상위 계층이 자원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교환 가치의 혜택을 활용하는 동안 저소득 계층은 공간의 사용가치를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 부으며 공간의 축쇄에 갇히게 된다(Harvey, 1989: 265).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는 이러한 상호 어려움을 공유하고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강한 귀속감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앞서 논의한 서틀의 방어적 공동체와 상응한다.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Sassen, 2000)은 글로벌 도시의 특성으로 이중 도시(dual city), 즉 중심과 그 주변부의 분화에 대해 논한다. 이는 엄격한 공간적 위치에 의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자원과 관계된다. 중심은 글로벌 경제의 금융,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의 회로에 접속된 곳으로, 합리성의 공간이자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이러한 공간은 물리적 경계보다는 추상적인 정보 흐름의 강도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 바우만이 언급했던 ‘자발적 게토’와 유사하며 글로벌 엘리트, 물질 상품, 추상적 정보의 이동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주변부 혹은 경계 공간은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다양한 타자들인 이주민이나 하위계층이 한데 뒤섞인 “혼합된 타자성(amalgated otherness)”(Sassen, 2000: 192)의 공간이다. 이들의 주거지는 그 자체로 도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곳이다. 평가 절하된 이들의 존재는 그러나 글로벌 도시의 유지를 위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글로벌 도시의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현에 있어서 쉽게 평가 절하되고 제외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재현의 정치학이 요구된다. 사센은 글로벌 도시의 주요 내러티브가 글로벌 기업과 엘리트 그룹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도시의 동네, 학교, 공공 공간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중심과 타자화 된 이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 지배적 자본주의의 논리뿐만 아니라 실제 도시적 삶의 형태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Castells, 1997)에 의하면 공동체는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저로서 종교, 국가적 정체성, 지역성, 종족적 특성과 결부된 문화적 공동체는 장소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주체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외부의 급격한 변화들에 대한 반응적 존재로서, 글로벌화에 의해 용해되고 있는 사회조직들의 자율성에 대해,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와 점점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유연성에 대해, 그리고 가족과 사회화 및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그 흐름을 타지 못한 존재들이다. 즉 급격한 변동에 대한 개인들의 집합적 반응들이 공동체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역사적 기억을 상기해내고 장소들에 자신들을 위치 지으려 한다. 흐름의 공간에서 장소성에 정박하려는 이들 공동체는 그래서 방어적이며 반응적이다. 모든 장소들이 흐름의 공간에 접속할 필요는 없지만 접속하지 못한 장소들의 운명은 그리 밝지 않다.

시카고학파가 인간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임대료 지불 여부를 주거지의 분화와 공동체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상태를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인 것과 달리, 20세기 후반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적 변화들에 대한 분석은 주거지의 분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계급적 질서를 고착화하는 이상황을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조건이 아닌 극복해야 할 도시의 문제들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

한 초점은 도시 공동체의 수동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시 공동체의 조직 원리나 재정의에 대한 물음 자체는 미시적 문제로 치부된다. 혹은 공동체는 특정 종족, 계층, 성적 소수자, 문화적 취향 등 사회적 소수자들과 긴밀히 연결된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만 상상된다. 공동체가 주요 연구 대상에서 밀려남으로써 글로벌 도시론 자체는 공동체의 정의를 과거로 되돌려 놓는 효과를 갖게 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칙들로서 물리적 환경, 감정적 유대감, 상징적 유대감, 그리고 계급 분화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원칙들은 무엇이 공동체로서 인지되고 이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조직되는지 여러 층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현실에서 우리는 쉽게 이러한 공동체를 인지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구분 짓기도 한다. 가시적인 차이들에 의해 동질화되고 구분되는 이러한 공동체들은 타자성에 의해 서로 배타적인 공동체를 강화시키게 된다. 타자성과 동질성의 이중적 성격이 공동체들 간의 경계선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초국가적 이동성은 단일한 종족성에 기반하여 호명될 수 없는 존재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주하는 듯 보이는 ‘우리’라는 존재들 역시 다양한 정체성의 정치에 따라 타자로 호명되기도 한다. 그 누구도 쉽게 그들과 우리의 이분법에서 고정적인 위치나 우월적 지위를 선언할 수 없는 가운데, 공동체는 누구에 의해 혹은 누구를 위해 정의될 수 있을 것인가?

4. 타자와 공동체와의 관계

1) 차이와 타자에 대한 인정

타자들의 공동체를 논의하기에는 차이의 정치와 정의를 숙고해 온 영(Young)의 논의가 필수적일 것이다. 영은 개별적인 특수성, 몸의 다양성, 언어 및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 등 다양한 차이들을 부정해 온 서구 이성에 대한 문

제제기를 하면서 그동안 서구 공동체주의의 이상은 사회적 차이를 부인하고 억압해 왔음을 지적한다. 공간적으로는 특히 공동체의 이상이 면대면 관계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시공간적 거리두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부인하고 있다(영, 2017: 478). 영의 이러한 논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오랜 이분법적인 논리 모두를 비판하면서 양극단의 두 논리가 공통적으로 차이를 부정하거나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추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들 모두 사회적 관계란 서로에게 함께 현전하는 상태를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개별 주체들이 서로에 대해 투명하다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주체 내부의 혹은 주체들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부인하게 된다(Young, 2017: 487). 이렇게 면대면 관계에 특권적 위상을 부여하는 공동체론은 시공간적으로 거리 두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있고 비현실적임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영이 제안하는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삶은 일단 차이를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타자들의 공간적 기반으로서 도시생활을 전제로 한다. 도시에서의 상호작용은 가족에서부터 사회 집단망이나 소규모 공동체들의 방대한 집합에서부터 정치, 상업, 축제와 같은 공적 장소에서의 상호작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차이에 기반하여 누군가를 배제하지도 어떤 공통점에 기반하여 동질화하지도 않는 차이의 정치에 기반할 때 도시에서의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공공성이 발현된다고 본다. 영의 이러한 도시 정치학은 구체적으로는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교외에 거주하면서 도심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를 향유하는 중상위 계층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자원 재분배를 실행하지 않는 지방 정부들의 불평등적 도시 정책의 부정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차이를 부정하는 이러한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인종별·민족별·계급별 공간 분리와 기능화를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이 영의 차이의 정치학이다. 그러나 흔히 미국 사회를 비롯해 정치학에서 추구하는 도덕적 성찰은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면서 현실에서의 개별성과 차이들을 배제하는데, 이러한 사회의 보편적 시민은 흔히 육

체적 특성이 배제된 이성적 존재로서의 남성 주체로 상정된다(Young, 2017: 244~247).

사유는 타자라는 상태를 제거하고자 한다. 사유 그 자체, 즉 사유하는 주체는 결국 통일성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Young, 2017: 222).

이러한 보편적 시민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여성, 성적 소수자, 인종적 혹은 종족적 소수자들은 무질서하며 불확실한 존재로 시민 공중의 이상에서 배제된다. 차이의 정치학에서 영이 결국 강조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과 차이를 무화시키는 동일성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다. 보편성보다는 구체적 사건들과 끊임 없이 분화하는 차이를 강조하는 영의 차이의 정치학은 흔히 보편적 공중과 정의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마치 영이 공적 영역을 포기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후퇴하는 것으로 오인받기도 하지만 이는 사적인 영역 자체를 공적인 삶이 결핍된 무엇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은 공적인 삶이 배제된 것으로 사적인 영역을 인식하기보다는 “공적인 시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택한 것”(Young, 2017: 264)이 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적인 삶에서의 개인이 온전히 보호 받고 공공의 영역에서의 차이의 정치학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차이를 강조하는 영의 정치학은 흔히 공동체주의자들이 대체로 반도시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영의 단편적인 언급 때문에 마치 공동체를 포기하기를 선언한 것처럼 오인받기도 한다. 그러나 영은 공동체의 이상을 비판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차이를 배제하려는 공동체주의 둘 모두에 대한 대안으로서 배제 없는 사회적 차이를 긍정하는 도시 생활의 규범적 이상을 구성하려 한다. 이에 대해 도시 생활에서 조우하게 되는 다양성과 차이를 지닌 타자를 두려워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다름에 끌리는 ‘에로티시즘(eroticism)’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여러 층으로 구성된 복잡한 도시의 타자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공적 공간에서 두드러지는 도시의 다양성을 이끌 수 있는 에로틱함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제들은 차

이의 정치가 규범으로 자리 잡는 도시 생활에서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영의 차이의 정치에서 강조하는 것은 차이 그 자체에 대한 인정이다.

2) 존재론적 한계를 공유하는 공동체

이러한 논의를 연장하여 도시 생활의 공동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차이와 타자성을 무화시키지 않으면서 타자들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식론적 전환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장-뤽 낭시(Jean-Luc Nancy)의 철학적 논의를 사회학적 언어로 재해석하려고 한다. 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무엇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가, 그 구성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에 대해 논할 때, 프랑스 철학자 낭시(Nancy, 1991)는 왜 공동체 그 자체가 ‘무위한가(inoperative)’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이상적이며 평화로운 사회적 집합체에 도달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함이다. 즉, 공동체 그 자체는 어떤 기능도 어떤 최종 목표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목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레이코 신도(Reiko Shindo)는 공동체를 “우리가 달성해야 할 어떤 대상”(Shindo, 2012: 151)으로 보려는 전통적인 믿음에 대한 낭시의 저항은 공동체가 그저 존재할 뿐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실상 낭시는 공동체의 붕괴와 상실로 인해 근대가 탄생했다고 믿는 서구의 지배적 인식을 비판한다.

게젤샤프트는 이전의 게마인샤프트를 붕괴시키면서 생겨났던 것이 아니다. …… 게젤샤프트가 우리에게 이롭고 개념도 없는 어떤 것의 자리를 차지했다. …… 공동체는 사회와 단절되었거나 사회가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사회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 — 물음, 기다림, 사건, 명령 — 이다(낭시, 2010: 40).

공동체에 대한 낭시의 질문은 개인주의의 승리가 공언되고 공동체주의에 대한 정치적 실험이 실패된 것으로 간주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과연 무엇

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서구 철학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공동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총체적 단위로서 국가, 인종, 혹은 종교적 차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는 배제적 성격을 갖는다. 차이에 대한 이러한 배제적 성격 때문에, 차이의 정치학을 강조했던 영(Young, 1990)과 같은 학자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신화적 믿음에도 불구하고 낭시는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는 폐기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더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재개념화가 시급함을 강조한다. 낭시를 전후하여 블랑쇼(Blanchot, 1988)와 아감벤(Agamben, 1993) 등 다수의 정치철학자들이 공동체의 재개념화 논의에 참여하면서 좀 더 폭넓은 정치적·문화적·존재론적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지면상 본 연구에서는 낭시의 공동체에 대한 재개념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서로의 유한성과 한계를 인지할 때 존재하므로, 공동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일종의 이끌림(*inclination*)이 있어야 한다. 영은 이러한 이끌림을 앞에서 도시 생활에서의 차이에 대한 에로티시즘으로 명명한 바도 있다. 그러나 차이 그 자체는 개별 존재들 간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끌림의 원인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방인, 낯선 자로 존재할 뿐이다. 낭시가 상정하는 인간 존재는 “공동 내 존재(*being-in-common*)”이다. 이는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의 개념과 유사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동일자에 대한 반복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수성이자 복수성으로서의 존재(*being singular plural*)”를 의미한다. 여기서 단수성은 독특함 혹은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복수성을 전제하는 단수성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면 단수성으로서의 개인은 타자의 존재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단수성은 복수성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단수성들의 함께 있음은 그 자체로 단수적이다. 그들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는 한 단수성은 연합된다(*assembles*). 그들은 서로 통합되지 않는 이상 서로 연결되어 있

다(Nancy, 2000: 32).

낭시의 논의를 공간과 공동체 그리고 타자들 간의 관계로서 확장시켜 본다면, 개인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되지 않고 그 사이에 공간 혹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히려 서로 이끌리게 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거리는 개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적 단수성 사이에 세계를 구성한다. 즉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일종의 허위적 통일성에 귀속되지 않으며 동시대성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즉 개별적 존재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되지 않고 단수성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서로 연관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연결되고 서로 의사소통에 기반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단수성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거리는 서로 상호 연결될 수 있지만 통합되지는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와 함께(with)라는 개념은 매우 동시대적이다. 이것이 표현하는 바는 바로 시공간의 공유이다. 시간적으로 바로 동시에 그리고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존재는 단수적 존재들의 무수한 다수성들 사이에 공간이 존재할 때만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Nancy, 2000: 35).

기존의 공동체 논의들은 단수성으로서의 인간을 동일한 인종, 민족, 혹은 여러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존재들, 혹은 동일한 물리적·상징적 경계를 공유할 때 이들을 공동체로 쉽게 호명하였지만 낭시의 논의에서 개별 존재들이 공유하는 것은 오직 ‘죽음’이라는 한계이다. 낭시의 단수적 존재인 개별 인간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인 적이 없으며 그렇기에 서로 이끌리고 연결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들이 죽음을 공유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한 개인은 그래서 “~와 함께(with)”라는 중요한 속성을 갖게 되며 서로에게 이끌리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서로에게 끌린다는 속성 자체가 차

이를 무화시킬 만큼 정체성의 합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함께 존재하는 시공간의 공유 즉 동시성의 공유가 중요하다. 사회학적으로 “~와 함께(with)”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공유된 시간 속에서 일정한 공간적 거리가 유지되었을 때 가능한 관계를 의미한다.

개별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공통의 한계이자 내재성을 공유하면서 서로 의존하므로 모든 존재에게 공동체는 존재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낭시가 공동체의 본질로서 “무위”를 언급한 것은 공동체가 상실되었다는 현대 사회의 그 믿음과 신화, 그리고 그 신화에 근거하여 공동체를 회복하거나 구축해야 한다는 그 프로젝트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상실되었다고 믿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향한 욕망이나 기대는 현대 사회의 가혹한 현실에 대한 ‘뒤늦은 발명(a belated invention)’과 같은 것이다(Nancy, 1991: 10). 공동체는 재화와 사회적 역할의 공평한 분배나 어떤 권위나 억압의 평균점을 찾아 유지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살아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 존재들이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을 때 그 고유한 정체성이 충분히 고양되고 공유될 때 구성된다(Nancy, 1991: 9). 그래서 공동체란 개인들의 정치적 집합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 어딘가에 내재적으로 덧붙여져 있는 것이 공동체라고 한다(Shindo, 2012: 151). 이런 의미에서 ‘작동하지 않는’ 혹은 ‘무위의’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란 기획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단위가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낭시의 개념에서 이미 각 개별 존재들은 단지 죽음이라는 인간 공통의 한계에 의해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므로 인종, 종족, 민족, 젠더 등과 같은 현대 사회에 ‘나와 타자’를 가르는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공동체 역시 동일성에 기반하여 차이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그저 개별적 존재자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기에 공동체 자체가 경계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다. 낭시의 이러한 비전통적 방식의 공동체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은 특정 사회적 조직이나 기구를 지칭하지도 않고 그저 공유된 존재자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특히 개별 존재자들 사이의 ‘거리(distance)’의 중요성은 이 글의 앞

에서 논의된 짐멜의 이방인을 객관적 관찰자로 만들었던 ‘거리’를 떠올리게 한다. 물론 낭시가 얘기했던 개별적 존재자들 간의 거리는 물리적 장소성을 지닌 거리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짐멜의 이방인이 가진 객관성은 스스로를 주류 사회로부터 거리두기 함으로써 가능하다. 오히려 짐멜의 설명에서는 이방인이 어떻게 주류 사회와 상호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이방인과 주류 사회라는 이분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낭시의 단수적 존재는 “자기 충족적인 개인성(self-contained individuality)”(Dallmayr, 1997: 174)을 대체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새로운 함의를 담고 있다. 바로 이 개인은 죽음이라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서로에게 이끌리는 클리나멘(clinamen)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단수적 다수(singular plurals)들인 이방인들의 배치이며 어떤 개인도 타인에 대해 특권을 갖지 않는다.

5. 맺음말

공동체의 구성 원리에 대한 여러 다른 학문적 접근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간적 조건, 감정적 애착, 경제적 조건 등이 서로 맞물려 혹은 하나의 강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공동체의 구성 원리가 됨을 설명하였다. 지리적 조건 및 물리적 환경은 경제적 조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게토가 그 사례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범죄 가득한 동네들은 그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상황이 강하게 맞물려 이들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강력한 장애요소가 되어 게토의 성격을 강화한다. 그러나 게토 내에서도 정착의 순간에 감정적 애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경제적 조건들을 이겨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공동체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즉 민족성이나 인종 혹은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동일성에 의해 공동체가 구성된다는 그 시각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에는 부족하다. 점점 더 이방인 혹은 타자성의 존재들이 정주와 이동을 반복하는 이주의 시대에 타자와 나

를 구분하기보다 이러한 구분을 무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은 인종이나 종족성과 같은 공통성이 아닌 시공간의 동시성이자 인간이라는 한계 그 자체에 의한 서로의 이끌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논의를 공간적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공동체의 경계를 그리려는 시도보다는 사람들 간의 공간적 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타인으로서 공존해야 하는 현대인의 삶의 조건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공간적 거리의 유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자신을 감각적 자극의 과잉에서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무심한 태도(*blasé attitude*)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특정 누군가를 동시대성을 결여하고 있는 에스닉 공동체로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이나 종족적 특성과 상관없이 동시성의 기반 위에 단수적 다수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도달해야 할 이상이나 목표가 아닌 다양한 개인들이 시공간과 한계를 공유하는 체화된 그 무엇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공간적 조건들, 감정적 유대감, 경제적 조건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의에서 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조건들에 대한 해석의 방식이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나 타자와 ‘나’와의 위계적 수직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동시성에 기반한 차이에 대한 인정과 이끌림을 설명해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연구자가 제시하는 ‘타자들의 공동체’에서 타자는 자기 충족적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제3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타인을 위계적 질서 내에서 배제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타자는 다른 타자를 인지하는 자신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간의 공간적 혹은 존재론적 거리가 단지 서로를 타자로 만들어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한계, 낭시는 이를 죽음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난민과 이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가지는 생존의 절박함

역시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타자로서의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향할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것이지 인위적 구분과 계획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접수일: 2022.05.10.

심사완료일: 2022.06.11.

게재확정일: 2022.06.17.

최종원고접수일: 2022.06.19.

Abstract**Community of Stranger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mmunities of Strangers**

Kim Ji Youn

I situate my project within critical and interdisciplinary frameworks of cultural politics of strangers and otherness that approach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transnational urbanism, and globalization. Much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communities assume that a community shares a singular identity and delineates its spatial and cultural boundaries accordingly. This way of representation of ethnic communities, however, only results in naturalizing ethnic communities and clear distinction about who is the host group and who are ‘strangers.’ Like Young (1990) who asserts the politics of difference, the ideal of community is dismissed because it denies and represses any kinds of social differences. However, rather than dismissing the notion of community, this research suggests a “community of strangers” as a new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This perspective depends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surrounding the “inoperative community” (Nancy, 1991), which means that, rather than as a goal to be accomplished, a community just exists by sharing infinitudes of human beings, specific contemporaneity in terms of spatial and temporal limits. The notion of a community of strangers, while deconstructing the traditional meaning attached to the community, aims to show that people with heterogeneous backgrounds, who are strangers to each other, can belong to a community without having to share sameness.

Keywords: others, migrants, ghetto, community, Nancy

참고문헌

-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서울: 모티브북.
- 장-뤽 낭시(Jean-Luc Nancy). 2010.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 옮김. 고양: 인간사랑.
- Agamben, G. 1993. *The Coming Communit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uman, Z. 1995. "Making and Unmaking of Strangers." *Thesis Eleven*, Vol.43, No.1, pp.1~16.
- _____. 1996. "From pilgrim to tourist or a short history of identity." in S. Hall & P. Du Gay (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New York: Sage Publications.
- _____. 2001. *Community: Seeking Safety in an Insecure World*. Cambridge, UK: Polity Press.
- _____. 2010.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Cambridge, Malden: Polity.
- Baumann, G. 1996. *Contesting Culture: Discourses of Identity in Multi-Ethnic Lond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nchot, M. 1988. *The Unavowable Community*. Barrytown, N.Y.: Station Hill Press.
- Burgess, E. W. 1967. "Can Neighborhood Work Have a Scientific Basis." in R. E. Park, E. W. Burgess, and R. D. McKenzie (eds.). *The Ci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tells, M. 1997.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 Blackwell.
- Chang, T. C. 2000. "Theming Cities, Taming Places: Insights From Singapore."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82, No.B, pp.35~54.
- Cohen, A. P. 1985.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Chichester, London & New York: E. Horwood, Tavistock Publications.
- Dallmayr, F. 1997. "An 'Inoperative' Global Community?: Reflections on Nancy." in D. Sheppard, S. Sparks, and C. Thomas (eds.). *On Jean-Luc Nancy: the Sense of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incher, R. and Jacobs, J. M. 1998. *Cities of Differ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Firey, W. 1944. "Sentiment and Symbolism as Ecological Variab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10, pp.140~148.
- Glowacka, D. 2006. "Community and the Work of Death: Thanato-Ontology in Hannah Arendt and Jean-Luc Nancy." *Culture Machine*, Vol.8.
- Gupta, A. and Ferguson, J. 1992. "Beyond Culture: Space,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 Difference.” *Cultural Anthropology*, Vol.7, pp.6~23.
- Hall, S. 1997. “The Local and the Global.” in A. McClintock, A. Mufti, E. Shohat, and Social Text Collective (eds.). *Dangerous Liaisons: Gender, Nation, and Postcolonial Perspectiv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rman, L. D. 1988. *The Modern Stranger: on Language and Membership*.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Harvey, D. 1989. *The Urban Experienc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unter, A. 1974. *Symbolic Communities: The Persistence and Change of Chicago's Local Communiti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gnatieff, M. 1992. “And Labors Demise~Suburbias Revenge.” *New Republic*, No.206, pp.10~11.
- Kim, H. M. 2017. “The Emergence of the Anti-Multiculturalist Movements in South Korea,” in C. H. Wang and D. P. S. Goh (eds.). *Precarious Belongings: Affect and Nationalism in Asi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New York: Routledge.
- Malpas, J. 2012. *Heidegger and the Thinking of Place: Explorations in the Topology of Being*. Cambridge, MA: MIT Press.
- McDowell, L.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cLemore. 1970. “Simmel's Stranger: A Critique of the Concept.” *The Pacific Sociological Review*, Vol.13, No.2, pp.86~94.
- Mewett, P. G. 1986. “Boundaries and Discourse in a Lewis Crofting Community.” in A. P. Cohen(ed.). *Symbolising Boundaries: Identity and Diversity in British Cultures*. Manchester, Wolfboro: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orin, M. E. 2006. “Putting Community Under Erasure: Derrida and Nancy on the Plurality of Singularities.” *Culture Machine*, Vol.8.
- Nancy, J. L. 1991. *The Inoperative Communit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2000. *Being Singular Plural*.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k, R. E. 1952. *Human Communities: the City and Human Ecology*. Glencoe, IL: FreePress.
- Park, R. E., Burgess, E. W., and McKenzie, R. D. 1967. *The City*. Chicago, IL: University

- of Chicago Press.
- Sassen, S. 2000. "Analytic Borderlands: Race, Gender and Representation in the New City." in G. Bridge and S. Watson (eds.). *A Companion to the City*. Oxford, Malden: Blackwell.
- Shin, G. W.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indo, R. 2012. "Rethinking Community: Translation Space as a Departure from Political Community,"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Vol.6, No.2, pp.149~164.
- Simmel, G. [1908]1950. "The Stranger." in G. Simmel and K. H. Wolff. (eds.).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Glencoe, IL: Free Press.
- _____. [1903]1971.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D. N. Levine (ed.). *Georg Simmel: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ttles, G. D. 1972.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mmuniti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mms, D. 1971. *The Urban Mosaic: Towards a Theory of Residential Different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önnies, F. 1988. *Community & Societ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Turner, B. S.1991. "The Modern Stranger: on Language and Membership" by L. D. Harmann, *Theory Culture & Society*, Vol.8, pp.249~250.
- Young, I. M. 1990.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L. J. Nicholson(ed.). *Feminism/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